

교육이주 모빌리티로 형성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장소성*

The Placeness of Jeju Global Education City through
Educational Migration Mobility

강다희**, 고민경***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의 대안적 공간으로서 제주로의 교육이주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 연구는 교육이주 모빌리티로 형성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장소성을 분석하고 사회공간적 함의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교육이주 모빌리티에 의해 형성된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기존의 제주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이주 모빌리티는 어떻게 제주에 뿌리내려 정착의 토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이주자들에게 어떤 장소로 인식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교육이주자들은 이질적 무대를 만들어 일시적 뿌리내림과 관계맺기를 실천하며 통로적 장소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교육이주 모빌리티에 의해 이질성, 일시성 및 통로성의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주요어: 제주영어교육도시, 교육이주 모빌리티, 모빌리티 렌즈, 장소성, 이질성, 일시성, 통로성

* 이 글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 및 보완시켰음.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박사과정(ekgm12606@snu.ac.kr).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조교수(koh.geo54@knu.ac.kr).

1. 들어가면서

최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해외유학 수요 흡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동북아시아 최고의 교육 허브’를 목표로 조성된 정주형 교육도시이자 계획도시를 일컫는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21). 2011년 국제학교 개교와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적자 운영과 낮은 학생 충원율로 그 실효성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¹⁾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 유학이 어려워지면서 그 수요를 흡수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학생충원율이 2019년 학교별 62%~88%에서 2021년 82%~98.4%로 크게 증가하였다.²⁾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들은 해외 유명 학교의 교과과정을 영어로 제공하지만 국내의 학력은 동시에 인정된다.³⁾ 그리고 국내에 설립된 다른 국제학교들에 비해 내국인의 입학 제한이 없다는 특성을 갖는다(교육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종합안내서비스, 2021). 사실상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외국인의 생활여건이나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을 위해 조성된 곳이 아니라 내국인의 영어능력향상과 글로벌 교육경험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김정임·윤명희, 2017). 또한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 충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갖춘, 해외 유학을 고려해볼 수 있는 사람들, 즉 상류층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이다. 이들에게 제주의 친환경적인 자연경관과 영어교육은 해외 유학을 대신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이며, 이는 제주 외 지역의 사람들을

1) “외국인학생들도 외면하는 제주국제학교 ... 적자 ‘눈덩이’”, 《미디어제주》, 2019년 10월 14일 자.

2) “코로나19로 날개 단 제주영어교육도시...충원율 역대 ‘최고’”. 《파이낸셜뉴스》, 2021년 8월 26일 자.

3) 국내 학력 인증을 위해 학생들은 주당 2시간 이상 국어와 사회(국사 포함) 과목을 한국 교사 자격을 소지한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다(고선지, 2019).

제주로 유입시키는 계기가 된다. 한편 제주는 해외 다른 지역에 비해 거리가 가까워 학생과 가족의 상호 교류가 비교적 자주 발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학비와 생활비로 영어교육을 할 수 있기에 해외 유학 대안으로 선호되고 있다(김원보, 2008).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나타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학생 총원율의 증가는 이를 잘 반영한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제주라는 섬으로의 이주를 전제로 형성된 곳이다. 국제학교들은 ‘영어교육의 중심지’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교육 허브’라는 장소 프레임 속에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1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학생들과 가족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주에 거주하게 된다. 따라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학생과 가족 그리고 교직원 등의 외부 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킨다. 실제로 2011년 국제학교의 개교 이후 약 10여 년 동안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급속한 인구증가를 겪었다. 서귀포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속한 대정읍의 인구는 2만 3,451명으로, 2010년(1만 6,934명)에 비해 약 38% 증가했다(서귀포시, 2021). 대정읍의 인구는 1991년 2만 1,037명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국제학교 개교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⁴⁾ 영어교육도시 계획 이전에는 대부분 곳자알과 목장지대⁵⁾였던 대정읍에 국제자유도시설립 프로젝트의 하나인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고, 제주특별법이 적용되는 국제학교가 설립됨에 따라서 교육 이주가 급증한 것이다. 그 결과 2018년 말 기준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학생 약 3,850명, 교직원 637명, 학생·교직원 가족 3,626명 등 총 8,100여 명이 상주한다.⁶⁾

4) “대정읍 눈에 띄는 인구 증가... 영어교육도시 조성 효과 특특”, 《제주신보》, 2019년 5월 16일자.

5)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 이전 이 지역은 대부분 과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자알 지대로, 대부분 목장지대(62.03%)와 임야(34.78%)로 구성되었다(제주영어전용타운 계획 당시의 통계로 129만평에 해당하는 내용)(박은관, 2007).

그렇다면 약 10여 년의 기간 동안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보다 구체적으로 제주 외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의 증가는 이 지역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로 인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장소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 이 연구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선행 연구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주로 경제적 효과와 운영(김원보, 2008; 양영철, 2009), 영어상용화에 대한 정책 및 교육 방안과 제주 지역과 해외 영어 정책 사례 비교의 대상(김원보·이용민, 2007; 김종훈, 2004)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기 이전에 예상되는 경제적·교육적 효과와 운영 방안에 대해 예측하고 계획에 대한 비판을 제시했으나, 국제학교의 개교 이후에 관련된 연구들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김태경(2016)의 연구, 국제학교로 이주해 온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실태를 미시적으로 밝힌 김정임·윤명희(2017)의 연구, 그리고 국제학교가 지역사회에 갖는 착근성에 대해 분석한 정승모(2021)의 연구 등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모빌리티 렌즈(mobility lens)의 개념을 통해 제주로의 교육이주가 만들어 낸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변화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최근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중심으로 부상 중인 모빌리티는 이동에 내재된 다양한 사회관계들의 실천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이다(Adey, 2009; Cresswell, 2006). 이러한 모빌리티의 개념을 적용한 모빌리티 렌즈는 이동과 장소의 관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모빌리티가 실천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장소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다(이용균, 2015). 이 연구는 국제학교 개교 이후 나타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변화를 교육이주 모빌리티가 생산한 장소성으로 규정하고, 모빌리티 렌즈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6) “국제 교육 인프라 구축… 해외 유학, 제주로 간다”, 《제주신보》, 2019년 9월 26일 자.

이 연구는 다음의 두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제주 이외 지역에서 비롯된 교육이주 모빌리티에 의해 형성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기존의 제주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가? 둘째, 일시적인 시공간으로의 교육이주 모빌리티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가?

이 연구는 교육이주 모빌리티가 생산한 장소성을 분석하여 모빌리티와 장소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리학을 중심으로 모빌리티와 장소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동과 부동의 다층적이고 모순적인 의미를 밝혀왔다(이상봉, 2017; 크레스웰·르마르상, 2021; Jensen, 2011). 이러한 모빌리티와 장소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관점을 토대로 이 연구는 모빌리티 장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모빌리티와 장소를 다룬 연구에서 나타나는 장소의 의미와 장소성을 개괄하여 논의의 토대를 마련한다. 3장에서는 연구대상인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형성 과정과 특성을 간략히 파악하고 연구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4장과 5장에서는 현장연구를 통해 나타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장소성과 그 의미를 분석하여 모빌리티와 장소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모빌리티와 장소

Mimi Sheller와 John Urry의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new mobilities paradigm) 전환」(2006) 발표 이후 사회과학과 인문학에서 모빌리티 개념은 이동에 내재된 사회적 의미와 이동의 체화된 실천 등의 의미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Cresswell, 2006; 2010).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동이 사회의 권력과 정치, 사회 정의 등과 엮이면서 더 이상 단순하게 외부에서 주어지거나 혹은 소외된 것이 아니기에, 이동보다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체계로 새롭게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Sheller, 2018). Cresswell(2006)과

Adey(2009)는 이러한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하에서 모빌리티의 다양한 의미를 파헤치는 작업을 시도했다. 이들은 근대 서구에서 발전해 온 모빌리티의 의미를 다각도로 파헤치면서, 이를 통해 모빌리티와 장소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에 의하면 모빌리티는 그동안 두 가지의 서로 대비되는 의미로 주로 재현됐다. Malkki(1992)의 표현을 빌려 이들은 그동안 모빌리티가 “정주적 형이상학”과 “유목적 형이상학”에 의해 구분되어 왔지만, 새 모빌리티 패러다임은 이동과 정착의 고정된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장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에 주목한다. 모빌리티는 장소를 형성하고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내는, 즉, 장소의 의미생산체계라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주적 형이상학은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상적으로 바라본다. 뿌리내림은 장소의 고정성을 만드는 동시에 장소의 물리적인 경계를 만드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동과 모빌리티는 이러한 장소의 본질적인 고정성을 방해하는 것이자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점차 정주에 토대를 두고 살아온 인간의 삶의 발전에 반대되는, “정주적인 삶에서 발견되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Sauer, 1952, Adey(2009)에서 재인용]. 난민이나 집시, 유목민과 같이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빌리티는 근대 사회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위협이었고, 이들을 특정한 장소에 정착시켜 모빌리티를 제거함으로써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했던 여러 사례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예: Sibley, 1981).

한편 유목적 형이상학은 이동을 사유의 출발로 삼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인간은 더 이상 평생 혹은 오랫동안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이에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장소들이 발생한다. 한때 비장소 혹은 장소성의 부재로 인식되었던 호텔이나 공항은 이제 유목적 형이상학에 의해 현대의 유동성과 모빌리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유목적 형이상학은 정주주의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었던 안정성과 고정성을 부인하고, 모빌리티는 기존의 질서와 규율에 대한 저항이자 동시에 비재현적 실천으로 나타난다(Thrift, 1994).

Cresswell과 Adey는 정주적 형이상학과 유목적 형이상학이 겹보기에는 서로 상반되어 보이지만, 새 모빌리티 패러다임에 의해 이 둘의 관계는 결코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몸과 집에서부터 도시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동 주체들의 실천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발생하고(Sheller, 2018), 이 과정에서 모빌리티는 이들이 맺는 관계에 의해 새로운 장소를 생산해 내기 때문이다. ‘정주-고정, 안정 및 질서’ vs. ‘유목-이동, 불안정 및 혼란’ 등의 도식에서 벗어나 장소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이동주체들의 실천,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장소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장소의 분석을 위해 ‘모빌리티 렌즈’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Urry, 2007).

Urry(2007)는 모빌리티 렌즈를 사회의 현상과 관계를 다양하고 상호 교차하는 관계로 바라보는, 즉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개념화했다. 이를 장소에 적용하면 이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장소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용균, 2015; 2019). 즉, 모빌리티 렌즈는 장소의 생성과정과 장소성을 규명하는 새로운 관점인 것이다.

그러나 장소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Massey(1997, 2005)의 경우, 장소가 상호연결의 흐름으로 형성되는 산물임을 지적하며, 내부-외부의 구분에 기반하여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구성물임을 주장한 바 있다. Pred(1984) 역시 장소는 ‘되어가고 있는’ 생성물로 변화와 과정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론 하에서 장소에 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이동과 이주에 의한 장소의 생성과정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장소의 혼종성을 밝혀왔다(예: 고민경, 2019; 이영민·이용균·이현옥, 2012; 이영민·이은하·이화용, 2013; 장세룡, 2012 등). 이들 기존 연구에서 이동은 곧 다른 곳으로의 정주를 전제한다. 이동의 결과로 이주자들은 장소의 기존 질서에 순응하고 동시에 저항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장소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새로이 형성된 장소는 지금 여기에서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동해 온 사람들의 정주에 대한 적응의 결과이자 생존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주자들의 이동이 반드시 다른 곳으로의 정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Mitchell(2004)은 자산가와 비즈니스 엘리트로 구성되는 ‘슈퍼시민들(super citizens)’이 경험하는 이동의 새로운 의미와 결과를 제시한다. 이들은 이동에 필요한 많은 자원을 갖고 있기에 다른 이들에 비해 이동이 자유롭다. 그렇기에 이들의 거주지는 휴양지나 은퇴지 혹은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곳과 구분된다. 이들에게 이동은 정착이 아닌,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위한 준비 혹은 도약이다(Urry, 2012). 이러한 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이동 능력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장소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모빌리티 렌즈를 적용시키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동, 더 나아가 모빌리티는 공평하고 균등하게 주어지는 자원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균등하고 차별적이다. 모빌리티 자체도 불균등하지만, 불균등한 모빌리티가 가져오는 결과 또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슈퍼시민들과 난민에게 주어진 모빌리티 자원 자체도 차이가 있지만, 그 이동의 결과로 차별적인 사회적 관계 또한 재/생산된다(Sheller, 2018). 따라서 모빌리티는 권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의 문제이며, 점차적으로 계층과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기제인 것이다(Haas, 2021). 이때 공간은 모빌리티의 재/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빌리티는 모빌리티 공간을 형성하는 다양한 사회-기술적 체계와 인프라들로 유지되며, 그러한 공간이 결국 모빌리티에 대한 권력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기 때문이다(Sheller, 2016). 그러므로 이동과 이주에 의해 형성되는 장소를 넘어서서 이동 주체에 의해 차별적으로 생산되는 모빌리티 장소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빌리티 자본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류층과 엘리트는 실제로 여행을 비롯한 단기 이동뿐 아니라 유학이나 취직 등 상대적으로 장기 이주에서도 자유롭다(Koh and Wissink, 2018; Luthra and Platt, 2016). 따라서 이들의 이주는 단기적이고, 소비 중심적이며, 관광과 레저활동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Torkington, 2012). 이들의 이주가 로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지만, 그 중심은 로컬의 변화 자체보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이에 의해 이들이 겪는 충격과 어려움이 주로 논의되었으며(Meier, 2015), 그 공간 자체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거나, ‘코스모폴리탄’적 분위기로 재현될 뿐이다(Beck, 2017, Norris, 2003).

이러한 맥락에서 모빌리티 자본을 충분히 가진 상류층의 이주, 특히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에 특정한 시공간으로 제한되는 교육이주를 모빌리티 렌즈로 바라보면 정착과 이동이 빚어내는 변증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이주 모빌리티가 만들어내는 장소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상류층 교육이주자들의 행위, 실천, 문화 등으로 형성되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장소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사회공간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남쪽 대정읍 구역리, 보성리, 신평리 일대에 조성된 교육을 주제로 한 계획도시이며, ‘제주영어교육도시개발구역’이라는 명칭으로 구역화되어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형성배경을 살펴보면, IMF 위기 이후 조기유학 증가에 따른 서비스무역수지 적자 심화, 기러기 가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증가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해외유학을 국내에서 흡수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였다. 마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교육환경이 필요해졌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대정읍에서도 기존에 대부분 임야와 목장지대였던 공간이 개발됨에 따라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하였다. 총 3,792,049m²(약 115만평) 부지에 현재는 4개의 학교, KIS Jeju(이하 KIS), NLCS Jeju(이하 NLCS), BHA, SJA Jeju(이하 SJA)가 운영 중에 있다

<표 1>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현황

구분	KIS	NLCS Jeju	BHA	SJA Jeju
	대한민국 첫 미국 사립 기숙학교 Korea International School	영국 명문 사학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캐나다 여자 명문 사학 Branksome Hall Asia	미국 명문사학 St. Johnsbury Academy Jeju
개교	2011.9.19.	2011.9.26.	2012.10.15.	2017.10.23.
유초·중·고등학교(통합)				
교육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AERO 교육과정 • 국내외 학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NLCS 교육과정 운영 및 IB Diploma 도입 • 국내외 학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섬홀 캐나다 교육과정 및 전학년 IB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학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SJA와 동일한 교육과정 제공 • 국내외 학력 인정
학급/ 학생수 (2020.12. 기준)	57학급/957명	72학급/1,370명	49학급/844명	51학급/879명

출처: JDC,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재구성.

(<표 1>).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한 국제학교(유·초·중·고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 특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⁷⁾ 국제학교 설립 규제 완화 내용에는 학제 자율화(유치원~12년제 자율선택), 내·외국인 입학비율, 입학자격, 수업료 등의 교육과정 자율결정, 외국인 교원의 자율임용 및 교과과정 자율선택, 국내외 학력 동시 인정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교육이주 모빌리티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적인 경험 연구를 주로 실시하였으며, 면담조사와 현지조사, 문헌자료(보고서, 기사, 책 등) 및 심상지도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다양한 행위자를 면담하였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부 및 외부 행위자에게 면담을 실시

7) 국제학교 설립은 ‘제주영어교육도시개발구역’ 내에만 허용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의 국제학교에는 예외적인 교육법과 제도가 적용된다.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였으며, 내부 행위자에는 국제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행정직원, 영어교육 도시 내 자영업자(가게 운영자, 공인중개사, 학원 운영자, 홈스테이 가디언),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직원 및 팀장이 있고, 외부 행위자에는 대정읍 지역교사, 지역 주민, 분양상담사, 구역리 사무국장이 있다.

면담은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자가 다른 응답자를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면담을 이어갔다. 면담자는 총 73명이나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유효한 응답을 한 50명의 면담 내용을 인용하였다. 인용한 면담 응답자의 정보는 부록(면담 1, 2, 3)에 첨부하였다. 그중 국제학교 학부모(8명)와 학생(13명)은 그룹 및 개인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국제학교 학생은 졸업(예정)자와 재학생을 면담하였고, 국제학교 학부모는 제주영어교육도시 특성상 여성(엄마) 혼자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여성을 대상으로 면담하였다. 대부분의 면담은 짧게는 20분 길게는 2시간 동안 직접 대면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추가 질문 혹은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메일로 진행하였다.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매달 3~6일, 총 25일 기간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 5월에 5일간 추가조사를 하였다. 주로 제주영어교육 도시를 돌아다니며 국제학교, 주변 상가, 주거지, 제주영어교육도시 사무소 등에서 도시경관, 인프라, 서비스, 물가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구역리, 보성리, 신평리 지역답사를 진행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외부의 차이점 및 이주자와 지역주민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면담과 현지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는 보고서, 기사, 홈페이지, 홍보물과 같은 문헌자료로 취득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교육이주자들의 모빌리티, 즉 정착과 이동 속에서 생산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장소성을 분석한다. 먼저 이주자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우발적으로 만나면서 어떠한 장소적 창발성을 만드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완전한 정착을 이루지 않은 채 또 다른 모빌리티 생산의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이주자들이 일시적인 공간적 뿌리내림을 실천하고 영어교육도시 안과 밖으로 관계를 맺으며 결과적으로 통로적 장소감을 갖게 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4. 교육이주 모빌리티의 정착: 이질성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기존의 제주와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질성을 나타낸다. 교육 이주자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요소들이 제주영어교육 도시에 공존함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창발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 가지의 이질적 측면이 존재한다. 우선 거주자가 대부분 이주자이기 때문에 거주자의 구성이 제주의 일반적인 지역과 상이하게 나타나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만드는 경관이 다르게 형성되며, 그들의 교육문화가 구별된다.

1) 거주자 구성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영어권 국가의 외국인 교사와 교사 자녀들, 제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자녀교육 목적으로 이주해 온 엄마들과 이들의 자녀들이 거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거주 외국인인 1,465명으로 도시 전체 활동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⁸⁾ 2019년 기준으로 KIS 158명(84%), NLCS 164명(87%), BHA 138명(86%), SJA 118명(89%)의 외국인 교원⁹⁾이 재직 중에 있으며(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¹⁰⁾ 이들 중 대부분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아파트 혹은 기숙사에서 지낸다. 제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는 영어권 국가의 외국인을 자주 목격할 수 있으며, 주변 마트에서도 이들을 위한 영어표지판 및 물품들이 자주 보인다. 국제학교 교사에 따르면, 외국 교사들은 영국, 캐나다,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오며, 국내 교사도 대부분 타지에서 온 경우가 많다(면담3-1).

-
- 8)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목표 절반도 도달 못해”, 《제주도민일보》, 2019년 11월 4일 자.
 9) 총교장, 총교감, 학교급별교장, 학교급별교감, 대학진학, 교사, 사서, 카운셀러, 행정교사, 보 건담당, 기숙사사감, 기타 등이 이에 해당한다.
 10) 2019년 기준으로 내국인 교원은 KIS 30명, NLCS 25명, BHA 22명, SJA 14명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거주자의 다수는 타 지역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주해 온 학부모와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조성 초기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거주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였지만 주거시설이 늘어나고 점점 학부모가 자녀와 같이 이주해 오며 따라 통학생이 증가하였다.¹¹⁾ 제주영어교육도시사무소 민원업무처리과 직원은 “전입신고할 때 사유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태를 보면 90% 정도가 교육이주”라고 밝혔다(면담3-23). JDC가 2018년에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630명과 학생 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출신지는 서울(48.8%)이 절반 가까이 됐고, 다음으로는 경기(19.2%), 제주(7.9%), 부산(7.8%), 경상(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제학교 교사가 체감하는 수도권 비율은 70~80%이며, 특히 강남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담3-1, 3-2, 3-5).

제주 국제학교 입학설명회는 주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 특히 서울에서 많이 진행된다.¹²⁾ 이는 수요층이 그 지역에 많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2019년 3월 서울 강남 O호텔에서 진행한 A 국제학교 입학설명회에서도 많은 학부모가 관심을 갖고 참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아파트 분양사무사는 “주 고객층이 수도권의 레벨이 좀 있는 쪽이다 보니 육지에 홍보관이 따로 있다”고 말한다. 또한 “금액대가 많이 차이가 나니 제주도 민이 영어교육도시에 살 이유가 없을뿐더러 너무 비싸다.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 친구들 특징이 드러나기보다 학교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학교가 확정됐을 때 가열된다”(면담3-25)라는 말을 통해서도 이 지역은 교육을 목적으로 타 지역으로부터 온 이주자들이 거주자의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11) 《한겨레》(2018년 8월 29일 자)에 따르면, 학생들은 기숙사(37.3%) 생활보다는 통학(62.7%)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이들의 거주지는 대정읍이 84%에 이르렀고 제주시 노형동과 한림읍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12) 2019~2020학년도 입학설명회를 KIS는 제주, 서울, 분당, NLCS는 제주, BHA는 부산, 서울, 대구, SJA는 서울, 분당에서 개최하였다.

2) 이질적 경관

경관의 이질성은 고급 소매업, 고급 주거시설 및 외제차,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우선 고급 소매업을 살펴보겠다. 국제학교 학부모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반쪽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는 멀어서 기러기지만 제주도는 가까우니까 ‘참새’라고 저희들끼리 그러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학부모 중 여성(엄마)만 자녀와 함께 지낸다(면담1-6). 면담자의 특성을 보면 주로 여성은 주부이며, 배우자의 직종은 사업가, 전문직(회계사, 변호사, 의사, 교수 등), 고위공무원 등으로 이들은 고소득 계층에 해당한다(부록 1). 배우자는 본 지역에서 평일에 경제활동을 하며 주말 동안 제주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학원 운영자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제주도 신흥부촌’이라 표현하며, 재력이 있어야 올 수 있는 특화된 곳이라고 설명하였다(면담3-24).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상권이 생겨남으로써 상업을 목적으로 이주 와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학부모가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유기농 마트를 운영하는 사장의 경우, 동일한 유기농 마트 브랜드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영어교육도시라는 특수상권을 인식하여 제주로 이주해서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담3-18).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는 제주의 다른 지역과 달리 유기농 마트를 많이 볼 수 있으며,¹³⁾ 이외에도 피부관리실, 미용실, 네일샵, 티샵, 카페, 브랜드 옷가게, 편집샵, 수입 가구점과 같은 고가의 소매업이 주로 위치해 있다.

상업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제주 사람은 많이 없어요. 서울 쪽이 인구나 정보가 많고 빠르다보니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생활하기는 불편한 동네예요. 대형 마트도 없고 먹을 때도 많이 없고 학부모가 학교 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 제주

13) 서귀포시 내 유기농 식품을 파는 고급 프랜차이즈 마트의 40%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다.

도에서의 삶에 대한 로망은 없었고 단지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왔어요. 여기는 서울에서 오거나 백화점 이용고객들이 많다보니까. 저희 브랜드가 2백화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 매출은 경쟁업체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목표달성은 했어요. 그런데 최근 경쟁업체 때문에 떨어졌죠. 원래는 3유기농마트 있었고 저희가 두 번째 매장으로 나온 건데 지금은 개인마트랑 친환경매장이 두 개가 생겼어요. 연희동에 3대형마트가 있어요. 거기 대표가 여기 학부모인데 학교를 보내면서 브랜드 런칭을 여기 했어요. 거기는 수입식품이 강한 매장이자 보니 PB상품이나 그런 건 없는데 수입상품으로 유기농이라든지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브랜드를 런칭한 거죠. 거기에 운영 노하우가 있으니 접목을 시킨 거죠. _ **면담3-18**

수요자층의 특성이 반영되어 이 지역의 서비스비와 물가는 주변 지역보다 높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지역주민은 “마트, 음식점은 영어교육도시 밖으로 조금만 나가도 있지만 이 안은 훨씬 비싸서 이마트, 대정읍 시장에 나가거나 오히려 편의점을 이용한다”며 높은 물가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면담 3-27). 현장 조사를 하면서도 영어교육도시 내 마트에는 일반 시중에서 보기 어려운 고가의 과일, 식자재, 수입과자 등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피트니스센터, 요가 및 필라테스의 강습비, 미용실비, 서비스시설 이용료 등도 높은 가격대를 보인다(면담3-3, 3-4, 3-6, 3-12).

다음으로, 고급 주거시설과 외제차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고도제한¹⁴⁾으로 인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는 제주의 도심지 지역과 달리 4층이 넘는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

1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제시된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하면 3등급지의 경우 시설물 높이 12m이하, 시설물 길이 120m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4등급지의 경우는 시설물 높이 15m이하, 시설물 길이 150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관등급은 80% 이상이 4등급이며 부분적으로 3·5등급이 있다.

<그림 1> 영어교육도시 내 타운하우스 및 유기농 마트

출처: 제1저자 촬영(2019년 6월).

한 시설과 편의가 제공되는 고급형 아파트 혹은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이 지어졌다. 특히 일반학교 주변과 달리 타운하우스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부와 주변에 많이 건축되었다. 이들의 집값은 강남의 집값과 맞먹을 정도이며,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교육프리미엄으로 인해 제주도에서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한 유일한 공간이다(면담3-21).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8년 대비 38.75% 상승해 제주 최고 상승률 기록했다.¹⁵⁾ 한 지역주민은 “엄마들이 돈 있으니까 집 하나 사서 애들 교육시키고 왔다 갔다 하는 생각으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 애들 교육비가 되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면담3-11).

여기는 어쨌든 레벨이 있는 동네라 편의시설도 달라요. 제주 시내내 해봐야 헬스센터 있을까, 여기는 사우나도 있고 영화관도 있어요. 여기 땅값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올랐어요. 완전 서울 강남 집값이지. 여기는 정말 지역 특성 아니면 14억 주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제주시는 평당 해봐야 1000~1300인데 여기는 2000~2400

15) “맹모의 힘’…제주도 영어교육도시 활기 꾸준”, 《뉴스웨이》, 2019년 6월 2일 자.

이예요. 평당 1000만 원 차이가 나니 총 공급가로 봤을 땐 저기가 한 5억이면 여기가 2~3배죠. _ **면담3-25**

또한 면담을 진행할 때 많은 응답자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외제차가 많이 보이는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동아일보》(2015년 4월 16일 자)에 따르면, 제주 지역 등록 수입 자동차는 2007년 1000대를 돌파한 이후 2011년 2205대로, 총 2000대를 넘어섰다.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2년 4714대를 기록해 한 해에 2500대가 새로 등록했고, 2013년 6508대에서 2014년에 9330대를 기록했다. 수입자동차 증가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에 따른 고소득층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¹⁶⁾ 현지조사를 할 때에도 제주영어교육도시 곳곳에서 외제차를 흔히 볼 수 있었으며, 특히 학생들 입·하교 시간에 외제차가 학교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이자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이주해 오고 끊임없는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공인중개사들이 몰려들었다. 대정읍 지역주민들은 대정 지역에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인한 투기 심리 때문에 없던 부동산이 몇 백 개가 생기고 땅값이 거의 100배 이상 올라서 땅을 증개해주는 곳도 많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면담3-7, 3-8). 공인중개사 A는 분당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다가 제주영어교육도시라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져 이곳에 와서 운영하고 있으며(면담3-28), 공인중개사 B는 수원에서 직장을 은퇴한 후 이곳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 B는 주택이나 인구수에 비해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이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면담3-29). 2016년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가 발표될 당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7곳이었다(김태경, 2016). 제주영어교육도시 이노에듀타운 구역(직선거리 약 200m) 안에는 9

16) “제주 수입차 등록 급증… 3월 1만대 넘어섰다”, 《동아일보》, 2015년 4월 16일 자.

개의 공인중개사가 위치해 있다. 영어교육도시 주변까지 범위를 조금만 확장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검색하면 27곳 이상이 나온다(네이버 지도, 2020년 6월 1일 검색). 이는 4년 사이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현재 전국 곳곳 공인중개사들의 관심을 끄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문화

교육문화의 이질성에는 사교육, 홈스테이, 국내법(법정공휴일) 미적용이 있다. 먼저,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국제학교 맞춤형 과외와 학원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학원이 거의 없었으며, 집에서 유학과 위주의 과외형태가 많이 생겨났고 (그룹)과외를 위해 학부모가 서울에서 교사를 직접 섭외하는 경우도 있었다(면담1-4, 1-8). 제주영어교육도시 도로 위 게시판, 아파트 게시판 등에 다양한 과목의 유학과 출신 과외 전단지들이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의 수업료는 시간당 7만 원 정도로, 보통 학교가 끝나면 자녀에게 과외를 받게 하는 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담3-11).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학교라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맞춘 학원들이 학교 주변으로 생겨났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처음으로 학원을 설립한 운영자에 따르면 “처음에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고 이주해 왔으나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채워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학원을 열게 되었다”고 한다(면담3-24). 특히 국제학교를 다니려면 영어실력이 좋아야 하지만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문법이나 작문을 가르쳐주고 국제학교 시스템에 맞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영어도서관 형태의 학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학부모들은 국제학교는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녀의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학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면담1-5).

처음에 학원이 없었어요. 서울에서 학원 보내는 엄마들은 불안해서 처음에는 다 제주시로 갔어요. 제주시 학원 다니느라고. 지금은 학원 많이 생겼어요. 학원비 어마어마해요. 부르는 게 값이죠. 국제학교 엄마들 완전 붐이야. …… 올 봄에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과외하는 거 포상금 준다고 해서 올라온 적이 있어요. 영어교육도시 내 아파트에 과외방들 많아요. 선생님 둘 셋이서 등록되지 않은 그런 학원들. 영어교육도시에는 대대적으로 아파트 앞에만다 다 붙여져 있었죠. 저 아시는 분도 등록되지 않는 곳이었는데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아파트에서 하시다가 학원상가로 나오시기도 하시고. _

면담1-2

최근에는 학원들이 서울 학원의 분점 형태로 많이 개원하였다.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서울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학원을 다니다가 방학 때는 서울(주로 압구정과 대치동)로 가서 수업을 받는다(면담1-4, 1-5). 학원 간판과 홍보 현수막에는 ‘서울캠퍼스’와 ‘제주캠퍼스’가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상가에는 학원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으며, 별도의 학원동 건물이 4개의 동으로 위치해 있다. 특히 국제학교 교육과정에는 일반학교에 비해 예체능 과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학교 맞춤형 미술, 피아노, 펜싱, 승마, 요트 등 다양한 학원이 생겨나고 있으며, 저학년으로 갈수록 주말 동안 스포츠클럽 혹은 스포츠 과외를 다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면담3-3, 3-21).

한편, 점점 제주영어교육도시에 학원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에 학부모들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신혜진(2018)은 입시 대비 구조상 여전히 사설 대학 입시 업체나 학원과 같은 사교육을 찾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사교육을 피해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이주해 왔으나 엄마의 불안한 심리와 학원 금단 현상으로 인하여 사교육 시장이 점차 커지고, 교육비가 더욱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면담1-1). 한 학부모는 학원과 과잉교육이 이곳의 문제점이라고 꼽으며, 아이들을 기숙사에 보내지 않고 직접 데려다 키우면서 기숙학교의 장점이 사라지는 현상을 안타까워했다(면담1-4).

다음으로, 홈스테이는 보통 다른 나라에서 연수 온 학생에게 집을 빌려주어

머물게 하는 형태이다(Rivers, 1998).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사례는 국내에서 해외유학을 하는 환경이며, 대부분 제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면서 홈스테이가 활성화되었다. 홈스테이 운영자는 집을 여러 채를 갖고 있어 사용하지 않는 곳을 홈스테이로 운영하기도 하고 집이 큰 경우에 학생들에게 방을 공유해서 하숙처럼 학생들을 돌보기도 한다(면담1-3).

원래 브런치 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그릇 사 모으고 있던 어느 날 동생이 학부모 모임 갔다가 전화 와서 본인들 홈스테이를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홈스테이를 하냐고 거꾸로 물어봤죠. 엄마들이 원하는데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주택에서 2가구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수요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그때 급하게 준비하고 2015년 1월부터 시작했어요. …… 상업활동 목적으로 오신 분 중에 저같이 홈스테이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30~40명 넘는 것 같고, 가장 많은 홈스테이는 엄마들이 최소한 제일 작은 방이 2개니까 엄마랑 자식이랑 한 방 쓰고 한 방은 애 친구가 쓰죠. 초등 클래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은 셀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집은 아파트 3~4채 사서 집마다 상주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해요. 그런 집이 2~3집이 있을 거예요. _ **면담3-21**

도시 내 거리 곳곳에서 학원 홍보지만큼 홈스테이 홍보지가 붙여져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학생들은 기숙사의 어려움과 불편함에서 벗어나고자 홈스테이를 많이 선택하고 있다. 홈스테이에 거주하는 학생은 “고학년은 독방을 쓰지만 저학년은 3, 4인실 혹은 2인실을 쓰는데 개인적 성향이 다르다보니 불편한 점도 있고 어린 학년들은 평일에 학교 앞 편의점도 못나가서 답답함을 느낀다. 주말에도 보호자가 나와야 나올 수 있어서 친구 통해 홈스테이 소개받고 기숙사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며 홈스테이의 생활을 만족해하고 있었다(면담2-1).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홈스테이는 하나의 교육거주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교는 한국의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도

<그림 2> 홈스테이 홍보지



출처: 제1저자 촬영(2020년 5월).

<그림 3> 2022년도 3~4월 학사일정

MARCH							APRIL						
M	TU	W	TH	F	SAT	SUN	M	TU	W	TH	F	SAT	SUN
	1	2	3	4	5	6					1	2	3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28	29	30	31				25	26	27	28	29	30	

5-13 Spring Vacation

15-19 April Vacation
20 Quarter 4 Begins
21-24 AISA Conference Activities (HS)

- Start/End dates
- Special events
- Vacation

출처: A 국제학교 홈페이지(검색일: 2021년 12월 4일).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공휴일에 등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다. 국제학교 교사는 “국제학교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교육부의 통제와 거의 관련이 없다. 삼일절, 현충일 등 모두 학교에 나간다”고 응답하였다(면담3-1).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직원도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공휴일에는 쉬지만 국제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다닌다”고 응답하면서 똑같은 곳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의 패턴을 보인다고 전했다(면담3-23). 더불어, 국제학교에서는 핼러윈, 세인트 패트릭 데이 등 서양의 기념일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담3-4).

면담을 하면서 제주도민들이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신세계’(면담1-4), ‘제주가 아닌 공간’(면담3-2), ‘베버리힐스’(면담3-25)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이질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새로운 교육공간에 이질적인 집단들이 이주해 오고 정착하면서 상이한 경관과 교육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기존 제주사회와 전혀 다른 장소가 되었다. 즉, 교육이주 모빌리티 정착의 결과로 상이한 요소들이 제주영어교육도시라는 무대에서 우발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제주 속 비제주’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질적인 장소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5. 교육이주 모빌리티의 재생산: 일시성 및 통로성

교육이주자들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채로 또 다른 모빌리티 생산의 가능성을 내포함으로써 일시적이고 통로적인 장소성을 보여준다. 일시성은 일시적 뿌리내림과 관계맺기의 실천으로 나타나며, 통로성은 교육이주자들이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새로운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거치는 중간 장소이자 하나의 통로로 여김에 따라 나타나는 인지적 감정으로 구현된다.

1) 일시적 뿌리내림과 관계맺기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이주자들은 일시적 뿌리내림과 관계맺기를 실천하고 있다. 외국인 교사의 경우, 제주영어교육도시는 2년 정도의 계약기간 동안 교

직생활을 하는 장소이다. 국제학교는 외국 교육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학교처럼 교사를 정년제로 뽑지 않고 계약제로 뽑는다. 교사들은 1~4년 정도의 계약기간 동안 각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기숙사 혹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삶을 살아간다(면답3-2). 외국인 교사들에게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높은 월급, 경력 쌓는 발판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머물다가는 장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교사가 자주 변경되고 교수능력이 좋은 교사가 다른 외국의 학교로 이동함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떨어지고 점점 사교육을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면답2-1, 2-2, 2-3).

국제학교 교사는 풀이 달라요. 싱가포르나 홍콩 30~40개, 중국은 100개 이상 있으니 그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국제학교 교사의 채용은 글로벌이죠. 봉급이 적으니까 본국으로는 잘 안가요. 가족이 다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 여기는 페이가 높고 집도 제공해 주니 경제적인 면에서 만족해하는데 문화적으로 힘들어해요. 음식이라든지 사회제도라든지 이런 게 익숙하지 않고 친구가 없는 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국제학교는 방학이 많아요. 지금 (여름에) 두 달, 겨울에는 3주, 매학기 2주씩 방학이 있는데 자기 나라로 떠나든지 가까운 나라인 일본으로 여행을 가든지 주로 외로워서 떠나는 경향이 있어요. _ **면답3-1**

국제학교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이다. 보통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본집이 있고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세컨드 하우스로 집을 갖는다. 분양상담사 A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주 고객층은 독특한 특징을 갖는데, 제주 시내의 경우 주 고객층이 주택 소유를 원하는 수요자들이라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주택이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역의 특징(자녀교육)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전했다(면답3-25). 분양상담사 B도 “이곳은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서 분양할 때와 다르게 독특함이 있다”고 말하며 “다른 곳은 실거주를 하면 일반적인 생활패턴을 보이거나 이곳은 실거주는

하지만 교육을 위해 오는 엄마들이 불편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분위기”라고 밝혔다(면담3-26). 이를 증명하듯이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거주자는 대부분 방학 시기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초창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거의 남는 사람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긴 방학에 올라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짧은 방학에는 이동을 줄이는 추세이다(면담 1-4, 1-7).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방학기간은 공동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방학기간의 제주영어교육도시 모습은 학기 중의 모습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학기간 중에 현지조사를 할 때 집들이 많이 비워져 있었으며 도로에서 사람과 차를 보기가 어려웠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대부분의 상가가 방학기간 동안 휴점을 하거나 단축운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가게 운영자들은 방학기간에 운영을 하면 직원 월급, 임대료 등을 기회비용으로 버려야 하며, 매출을 따지면 문을 닫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면담3-19, 3-20). 이처럼 방학시기에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특성 때문에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유령도시’라고 불리기도 한다(김정임·윤명희, 2017). 최근에 주거단지가 늘어나고 주변 학원가도 생김에 따라 이전만큼의 공동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면담3-21).

국제학교는 보통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3~4개월 정도이다. 이 기간 동안 수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주영어교육도시 상권 형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면담3-1, 3-10, 3-15). 이는 거주자들의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불편함으로 이어졌다. 초반에는 국제학교 주변 편의점들이 전국 매출 1, 2위를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서 엄마들이 우울증 걸린다고 밖으로 나가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면담1-4). 특히, 학부모들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점을 제일 불편한 점으로 꼽으며, 살던 지역으로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병원순례라고 응답하였다(면담1-1, 1-7).

학생들의 경우에는 방학 동안 주로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며 학기 중에 즐기지 못한 여가 및 소비생활을 즐기다 학기가 시작하면 제주로 돌아온다(면담2-1,

2-4). 학생들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이동의 제약이 높고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방학 동안에는 서울에서의 거주를 선호하였다(면담2-2, 2-3, 2-5). 한편,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방학 기간에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 오히려 학기 중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이 방학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한다.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에게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일시적으로 부모님에게 떨어져서 자유를 느끼고 해방감을 만끽하는 장소로 작용하고 있었다(면담2-6, 2-7, 2-8).

또한, 국제학교 학부모와 학생은 일시적 관계맺기를 통해 제주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년모임, 여가모임, 종교모임 등과 같은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이주해 온 장소에 정착하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중 학년모임은 가장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이다(면담1-3, 1-5).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우, 전국 곳곳에서 학부모들이 자녀교육 목적으로 이주해 오다 보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교육이라는 매개체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골프, 올레길 탐방, 꽃꽂이 등 여가모임을 통해 제주에서의 생활을 즐기기도 하며, 종교모임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담1-1, 1-4, 1-5).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한 곳에 모이다보니 서로의 관심이 잘 맞고 쉽게 친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주자 집단으로 구성된 특성으로 인해 깊게 친해지지 못한다(면담3-22). 이들은 중간에 다시 돌아가기도 하며, 서로가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서 자녀가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만 정착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부모도 볼 수 있었다(면담1-1). 학부모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역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김정임·윤명희(2017)의 연구에서도 학부모 간의 교류활동은 인간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기보다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로써 일시적이고 약한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의외인 건 국제학교 학부모끼리의 커뮤니티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 본인들끼리 뭔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제주시 학군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학부모님을 만나기도 전에 학부모님들은 제가 어떤 스타일의 수업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하는지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들은 유대가 있는데 여기는 강한 유대가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_ **면담3-14**

영어교육도시 사람들은 그냥 정말 애들 때문에 제주에 온 사람처럼 보여요. 별로 교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누구 엄마, 누구 엄마 하면서 친한 엄마들 서로 이름도 몰라요. 자기관리는 해야 하니까 운동은 나오는 것 같아요. _ **면담3-12**

그뿐만 아니라, 국제학교 학생들은 잦은 이동을 경험하며 또래친구들과도 일시적으로 관계를 맺는 경향이 많다. 국내외 학력을 동시에 인정해주는 제도는 학생들이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일반학교로 돌아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으며, 다른 국제학교로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학과 중도포기의 비율을 높이는 배경이 된다.¹⁷⁾ 실제로 영어사용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교우관계의 문제, 교사 및 학교 시스템 불만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반학교 혹은 다른 국제학교 혹은 외국학교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담3-2). 이러한 국제학교의 특성으로 인해 인근 지역 일반학교에서는 국제학교로 가기 위한 혹은 국제학교를 포기한 학생 등의 전입 혹은 전출을 떠맡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면담3-15, 3-16, 3-17).

한편, 이주자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영어교육도시 내부에서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연결 및 교류의 노력이 이루어

17) 전출자 수는 졸업학생을 제외한 수이다. 전출자 중에는 중도포기자가 포함된 것으로, 일반학교로 돌아가거나 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전출자에 해당한다. 2017~2018학년도 기준으로 KIS는 입학자 310명, 전출자 142명, NLCS는 입학자 354명, 전출자 153명, BHA는 입학자 120명, 전출자 188명이다. SJA의 경우 2017년도에 개교함에 따라 대부분 입학자이지만 입학 후 1년 내 38명의 전출자가 발생하였다(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지지 않고 서로의 다름으로 인한 문화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교육도시는 물리적으로도 구분되어 있어 주변 마을과 차단되고 이는 교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담3-1). 또한 이주자들은 기존 마을 사람들이 연령대가 높고 농사 문화에 익숙하여, 그로 인한 생각 차이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게 된다(면담1-1).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사람들이 인근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기 드물며 지역주민 또한 그들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교류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응답하였다(면담3-8, 3-9)

제주가 결혼해도 귀당에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영어교육도시는 행정구역상으로 구역리, 보성리라고 되었으나 마을에 나오라 이런 소리도 없어요. 구역리까지 나가는 데가 들어오는 입구 1개, 나가는 입구 1개예요.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구역리까지 나가는 길이 차로 2분인데 그 길이 꽤 길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없고, 어르신들은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여기 영어로 얘기해야 한다”, “여기가 땅값 올려놨다”라고 하시며, 여기를 배척하시는 분들 실제로 봤어요. 여기 복잡하다면서 처음에는 가스 배달도 안 해줬어요. …… 사는 데가 다르다보니 섞이지 못하는 거죠. 여기 분들도 굳이 나가서 섞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 때문에 바쁘고 남편들도 위에 있고 꾸준히 무엇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_ **면담3-27**

이처럼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일시적 뿌리내림과 관계맺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그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한정적이다. 이러한 모습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일시적인 장소로 만든다.

2) 통로적 장소감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국제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외국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통로적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학교 학생은 제주 국제학교를 본인의 진로에 있어 ‘중요한 경로’라고 표현하였다(면담2-2). 이처럼 학생과 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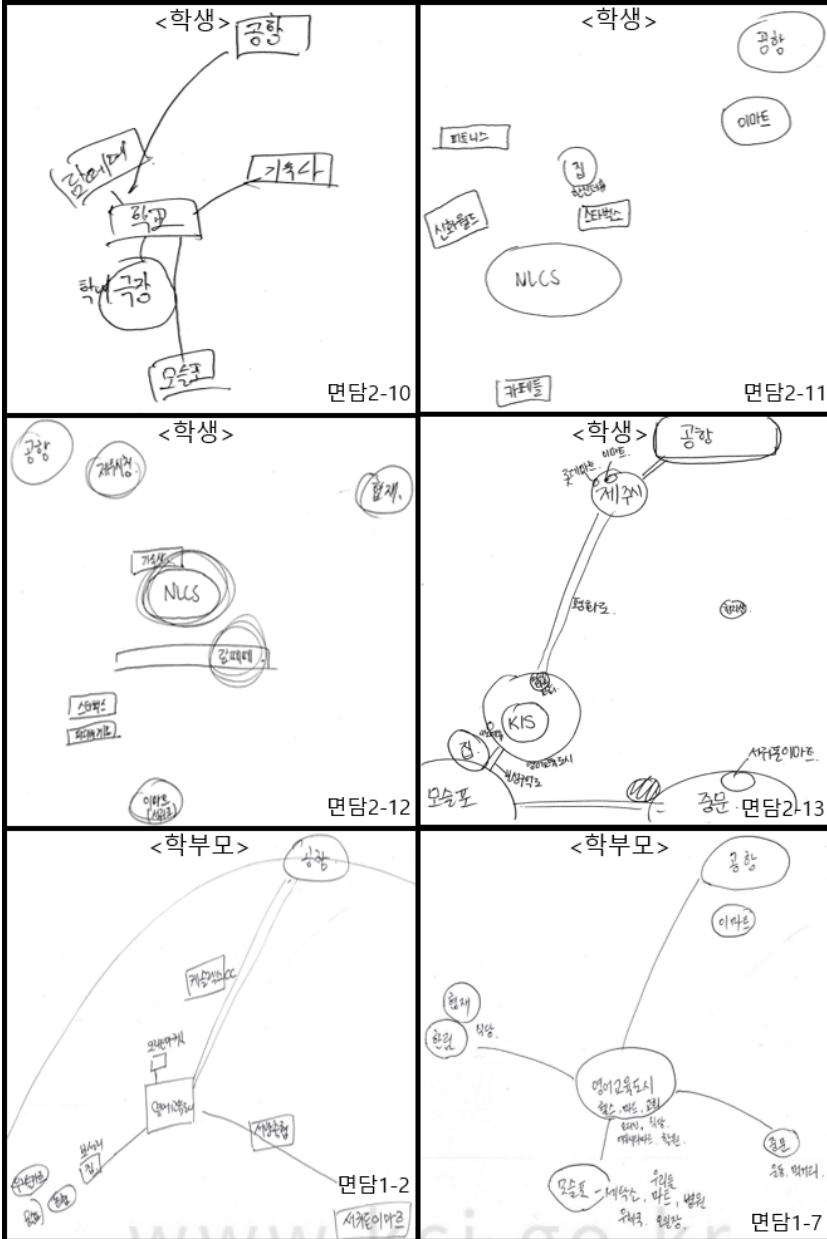
모는 유학을 가는 대신 제주영어교육도시로의 이주를 선택하고, 목표로 하는 대학 입학에 위해 제주 국제학교를 다닌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특히 국내의 고소득계층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주해 온 장소이자 Mitchell(2004)의 지적처럼 사회적 재생산의 측면이 나타나는 통로적 장소의 모습을 보인다.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길게는 13년 이상 학창시절(유치원~고등학교)을 보내게 되지만 제주도에 대한 소속감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너무 제한적인 공간만 알고 있으며, 제주의 다른 지역과 연결이 되거나 제주사회를 경험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제주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그들은 제주도에서 단절된 느낌을 받으며 단지 학교를 다니기 위한 목적만을 지닌 채 학교 주변에만 머무르는 모습을 보인다(면담2-2, 2-4, 2-6). 또한 대부분 학생들은 제주가 아닌 영어교육도시,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며, 졸업 후에 제주로 돌아올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담2-9, 2-10).

한편, 주요 도심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멀리 위치해 있고 근처에 편의시설, 부대시설, 문화시설 등이 부재하기 때문에 대정읍 내 모슬포는 학생들에게 제2의 활동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제주에서 그나마 친구들과 모여서 오락을 즐기고 모임을 갖는 장소가 모슬포 시내와 시청인데 시청은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동반경이 거의 학교 주변에 국한되어 답답함을 자주 느끼고 있다(면담2-2, 2-3, 2-8). 한 학생은 이러한 상황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면담2-7). 국제학교 학생들의 심상지도(<그림 4>)에서는 학생들의 이동반경이 주로 학교 주변(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슬포 등)에 그치는 것과 다수의 학생이 공통적으로 ‘공항’을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학생들에게 ‘제주=학교’이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혹은 제주를 벗어날 수 있는 ‘공항’이라는 장소가 그들에게는 제주에서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학교 학부모의 심상지도(<그림 4>)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들 또한 정착이 아닌 자녀교육을 위해 제주영어교육도시로의 이주를 선

<그림 4> 국제학교 학생 및 학부모 심상지도



택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활동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돌아갈 수 있는 매개체인 공항이 중요한 장소로 나타났다. 이들과 제주와의 연결은 매우 약하고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이미지를 갖는다. 이들은 자녀의 학업이 끝나면 아예 돌아가거나 집을 남긴 채 휴가 때 놀러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담1-1, 1-7). 즉, 이들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통로적 장소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주민들의 이 지역 만족도가 높지는 않아요. 첫 번째가 즐길 게 없다. 두 번째는 개인의 생각일 수 있지만 뭐든지 맛이 없대요, 그런 사람들은 아침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쇼핑하고 저녁 되면 내려와요. 여전히 그런 생활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답답하면 1박 2일 정도 다녀오기도 하죠. 애들이 클수록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 현재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학부모들은 별로 없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문화적인 것 같아요. 엄마들 말로는 골프도 하루 이틀이래요. 주로 하는 게 골프치고 맛집 탐방하는데 2년 하나까 시들하더라고요. 강남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 여긴 전국 상위 1퍼센트에서 오는데 백화점도 없고 하나까. _ **면담3-21**

한 국제학교 학부모의 “100프로 자녀교육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맹모삼천지교입니다”(면담1-7)라는 말처럼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국제학교를 다니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이주로 선택한 곳이다. 대부분 학부모의 경우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이곳에서 거주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에 이주해 온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굳이 불편한 점이 많고 본인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곳에서 정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역주민 또한 이들은 정착의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며, 자식들을 외국으로 보내기 위한 거점으로만 있기 때문에 극소수만 마을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대부분 마을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고 느낀다(면담3-13).

이처럼 교육이주자(학생, 학부모)들이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외국대학 진학의

통로로 여기는 경향이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시적 뿌리내림과 관계맺기의 연장선으로 그들이 가지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인지적·감정적 느낌이다. 즉, 이들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채로 또 다른 모빌리티 생산의 가능성을 내포함으로써 일시성과 통로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자들은 제주사회에서 제한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한편, 국제학교 학생들은 현재 교육과정으로 제주의 역사,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제주에 대한 애착심을 갖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국제학교 학부모 또한 단지 제주를 스쳐 지나가는 공간으로 여긴다면 제주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6. 결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딴 곳자왓 지대에 ‘제주영어교육도시’라는 교육을 주제로 한 계획도시가 설립됨으로써 새로운 장소가 탄생하게 되었다. 예외적인 교육법과 제도가 적용되는 국제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해외유학·어학연수의 대안적 공간으로 국내, 특히 수도권에서 고소득 계층의 학부모와 그의 자녀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선택하여 이주하였다. 더불어, 영어권 국가의 국제학교 교사들과 그의 자녀들이 이주해 오으로써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제주 토착민이 아닌 이주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주자들의 지역적·계층적·국가적 차이 등으로 인해 제주영어교육도시라는 독특한 장소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교육이주 모빌리티로 형성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갖는 장소성과 사회공간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이주자들의 정착과 이동이 동시에 작용함에 따라 어떠한 장소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았다. 그들은 이질성, 일시성, 통로성의 장소성을 만들었고, 구체적으로는 이질적 무대를 만들어 일시적 뿌리내림과 관계맺기를 실천하며 통로적 장소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

본 연구는 모빌리티로 형성된 장소에 관한 하나의 구체적 사례연구로 교육이주 모빌리티가 생산한 장소성을 분석하여 모빌리티와 장소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모빌리티로 형성된 장소는 새로운 장소성을 창출하며, 이는 지역사회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하나의 계획도시로 제주에서는 ‘동북아시아의 교육허브’라는 표어를 이 장소의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다(박순철, 2010).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계획상에 그려진 이미지 이외에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계획도시의 경우 많은 모빌리티가 발생하게 되며 사람들의 이주를 통해 새로운 장소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계획도시 정책을 세울 때 청사진만이 아니라 모빌리티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이 10년 정도 진행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계속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장소가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생성·변화의 관점에서 열려진 공간인 것처럼, 장소성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누적된 행동과 경험에 대한 이해와 현재의 수요 및 미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양방향적 성격을 지닌다(공윤경, 2010). 하지만 현재 제주 사회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과 관련 없는 곳이라 생각하며 다른 세상, 분리된 공간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이주자들과 제주 사회와의 연결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제주영어교육도시로의 교육이주 모빌리티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주자들의 모빌리티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장소성이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다양한 집단의 면담을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장소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다양한 집단을 면담하였지만 각 집단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집단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둘째, 면담을 진행하지 못한 외국인 교사 및 학생과 같은 대상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만 그들의 내

용을 서술한 측면이 있다. 셋째, 교육이주 모빌리티가 만들어낸 제주영어교육 도시의 장소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제주에서의 삶으로 인해 변화되는 모습 혹은 제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실제 조사를 하면서 지역 봉사, 행사 참여 등과 같은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강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와 연결되기 위해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 문화체험을 통해 나름대로 고착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이주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문제점과 이주자들의 상이한 실천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장소성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접수일: 2021.11.20.

심사완료일: 2021.12.22.

게재확정일: 2021.12.27.

최종원고접수일: 2021.12.29.

부록

1. 국제학교 학부모 면담자 구성표(면담1)

연번	성별	연령	직업	배우자 직업	현재 거주 지역 및 형태	이주 직전 거주지	이주 시기	자녀의 학년 및 성별
1	여	40대	주부	펀드매니저	한경면, 타운하우스	서울 송파구	2017.9	7학년, 여
2	여	50대	사업가	회사원	보성리, 타운하우스	서울 노원구	2015.1	12학년, 여 11학년, 남
3	여	40대	의사	의사	노형동, 아파트	—	—	2019 졸업, 여
4	여	40대	주부	판사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서울 서초구	2014	9학년, 남
5	여	40대	주부	회사원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서울 서초구	2018.1	8학년, 남 2학년(보성초), 여
6	여	50대	주부	사업가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경기 고양시	2015	10학년, 여
7	여	50대	주부	교수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서울 강남구	2019.1	12학년, 여 11학년, 남
8	여	50대	주부	회계사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서울 광진구	2018.10	13학년, 남

2. 국제학교 학생 면담자 구성표(면담 2)

연번	성별	연령 및 졸업시기 혹은 학년	재학기간 거주 지역 및 거주방식	이주 시기	이주 직전 거주지	부모 나이 및 직업
1	여	18세, 11학년	영어교육도시, 홈스테이	2015.8	서울 동대문구	부/ 50대/ 사업가 모/ 50대/ 사업가
2	여	20세, 2019 졸업	영어교육도시, 기숙사	2012.8	서울 용산구	부/ 40대/ 사업가 모/ 40대/ 사업가
3	남	20세, 2019 졸업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2011.8	경기 고양시	부/ 50대/ 사업가 모/ 50대/ 주부
4	여	25세, 2014 졸업	영어교육도시, 기숙사	2011.9	제주 건입동	부/ 50대/ 의사 모/ 50대/ 주부
5	여	20세, 2019 졸업	영어교육도시, 기숙사	2011.9	제주 노형동	부/ 50대/ 의사 모/ 50대/ 주부
6	남	21세, 2018 졸업	영어교육도시, 기숙사	2011.8	서울 강남구	부/ 50대/ 투자자 모/ 5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7	남	21세, 2018 졸업	영어교육도시, 기숙사	2012.9	서울 강남구	부/ 50대/ 비공개 모/ 50대/ 주부
8	남	20세, 2019 졸업	영어교육도시, 기숙사	2013.8	서울 영등포구	부/ 50대/ IT컨설턴트 모/ 50대/ IT컨설턴트
9	여	19세, 12학년	영어교육도시, 기숙사	2017.2	서울 송파구	부/ 50대/ 의사 모/ 50대/ 화가
10	남	19세, 12학년	영어교육도시, 기숙사	2017.8	대전 서구	부/ 50대/ 교수 모/ 50대/ 교수
11	여	19세, 12학년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2017.1	서울 강남구	부/ 50대/ 교수 모/ 50대/ 주부
12	여	19세, 12학년	영어교육도시, 기숙사	2017.8	경기	부/ 50대/ 사업가 모/ 40대/ 사업가
13	여	19세, 12학년	보성리, 타운하우스	2015.1	서울 노원구	부/ 50대/ 회사원 모/ 50대/ 사업가

3. 그 외 면담자 구성표(면담 3)

연번	구분	성별	비고
1	국제학교 교사	남	초등교사(7년차)/ 영어교육도시 거주/ 30대
2	국제학교 교사	여	중등교사(7년차)/ 서귀포시 신시가지 거주/ 40대
3	국제학교 교사	여	중등교사(1년차)/ 영어교육도시 거주/ 40대
4	국제학교 교사	여	초등교사(1년차)/ 영어교육도시 거주/ 20대
5	국제학교 교사	여	행정직원(2년 근무)/ 현 초등교사(2년차)/ 영어교육도시 거주/ 40대
6	국제학교 직원	여	행정직원(4년차)/ 제주시 건입동 거주/ 20대
7	지역주민	남	대정읍 보성리 거주/ 50대
8	지역주민	남	대정읍 하모리 거주/ 60대
9	지역주민	여	대정읍 구역리 거주/ 70대
10	지역주민	여	대정읍 보성리 거주/ 40대
11	지역주민	남	대정읍 상모리 거주/ 40대
12	지역주민	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필라테스 강사
13	지역 사무국장	여	구역리
14	지역교사	여	중학교 교사/ 30대
15	지역교사	여	중학교 교사/ 50대
16	지역교사	남	초등학교 교사/ 20대
17	지역교사	여	초등학교 교사/ 20대
18	가게 운영자	남	유기농 마트 운영
19	가게 운영자	여	식당 운영
20	가게 운영자	여	편의점 운영
21	홈스테이 가디언	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이주(2014년)
22	사무소 팀장	남	제주영어교육도시 사무소
23	사무소 직원	여	제주영어교육도시 사무소 민원업무처리과
24	학원 운영자	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이주(2012년)
25	분양상담사 A	여	15년차
26	분양상담사 B	여	18년차
27	목사	남	서울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이주(2012년)
28	공인중개사 A	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이주
29	공인중개사 B	남	경기도 수원시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이주

Abstract

**The Placeness of Jeju Global Education City through
Educational Migration Mobility**

Dahui Kang · Minkyung Koh

Jeju Global Education City(JGEC) attracts educational migration to Jeju as an alternative space for overseas study and English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laceness of JGEC formed by educational migration mobility and discusses the social and spatial implications. To this end, we investigate differential features and landscapes of JGEC compared to the existing Jeju. In addition, we examine how educational migration mobility is embedded to JGEC by doing so, how JGEC is perceived as a place by migrants. We found that educational migrants produced a heterogeneous site, practiced temporary embeddedness and relationships with other actors in JGEC, and lived with a sense of place as a passage to other spaces. As a result, JGEC constructs heterogeneity, temporality, and passageness of placeness through educational migration mobility.

Keywords: Jeju Global Education City(JGEC), educational migration mobility, mobility lens, placeness, heterogeneity, temporality, passageness

참고문헌

- 고민경. 2019. 「모빌리티를 통해 본 이주자 밀집지역의 역동성 탐구: 대림동 중국국적 이주자 밀집지역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31권 3호, 155~171쪽.
- 고선지. 2019.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의 해외 대학 유학 생활 경험」.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윤경. 2010. 「부산 산동네의 도시경관과 장소성에 관한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권 2호, 129~145쪽.
- 김원보. 2008.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제주의 영어경쟁력 강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김원보·이용민. 2007. 「필리핀의 사례검토를 통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방안」. 《영어영문학》, 12권 2호, 1~13쪽.
- 김정임·윤명희. 2017.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역주민의 생활실태: 국제학교 학부모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55권, 145~181쪽.
- 김종훈. 2004. 「국제자유도시의 언어정책: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영어영문학연구》, 46권 4호, 217~242쪽.
- 김태경. 2016.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파급효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박순철. 2010. 「동북아의 교육허브를 꿈꾼다-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유치 추진 상황」. 《본질과 현상》, 22호, 240~244쪽.
- 박은관. 2007.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 국무조정실 발간자료.
- 신혜진. 2018. 「제주국제학교를 선택한 학부모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철. 2009.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이상봉. 2017. 「모빌리티의 공간정치학: 장소의 재인식과 사회관계의 재구성」. 《대한정치학회보》, 25권 1호, 113~138쪽.
- 이영민·이용균·이현욱. 2012. 「중국 조선족의 트랜스이주와 로컬리티의 변화 연구: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권 2호, 103~116쪽.
- 이영민·이은하·이화용. 2013. 「중국 조선족의 글로벌 이주 네트워크와 연변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권 3호, 55~70쪽.
- 이용균. 2015. 「모빌리티의 구성과 실천에 대한 지리학적 탐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권 3호, 147~159쪽.
- 이용균. 2019. 「모빌리티의 생성과 모빌리티 렌즈로 보는 세상 읽기: 광주에서 오키나와로의 이동을 중심으로」. 김수철 엮음. 『모빌리티와 생활세계의 생산』. 앨피.
- 장세룡. 2012. 「이동성과 이주공간의 변화 그리고 로컬리티의 생성」. 《로컬리티 인문학》, 7권, 133~170쪽.

- 정승모. 2021.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지역 착근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크레스웰·르마르상. 2021. 『선을 넘지 마시오: 경유 공간에서의 이동 통제와 정체성 형성』. 박재연 옮김. 앨피.
- Adey, P. 2009. *Mobility*. London: Routledge.
- Beck, U. 2017. "Mobility and the Cosmopolitan Perspective." in S. Kesselring, M. Freudendal-Pedersen(eds). *Exploring Networked Urban Mobilities*. New York: Routledge.
- Cresswell, T. 2006. *On the Move: Mobility in the Modern Western World*. London: Routledge.
- Cresswell, T. 2010. "Towards a Politics of Mobi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pace and Society*, Vol.28, No.1, pp.17~31.
- Haas, T. 2021. "The Political Economy of Mobility Justice: Experiences from Germany." *Mobilities*, <https://doi.org/10.1080/17450101.2021.1987153>.
- Jensen, A. 2011. "Mobility, Space and Power: On the Multiplicities of Seeing Mobility." *Mobilities*, Vol.6, No.2, pp.255~271.
- Koh, S.Y. and Wissink, B. 2018. "Enabling, Structuring and Creating Elite Transnational Lifestyles: Intermediaries of the Super-Rich and the Elite Mobilities Industr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44, No.4, pp.592~609.
- Luthra, R. and Platt, L. 2016. "Elite or Middl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Migrant Diversification." *Ethnicities*, Vol.16, No.2, pp.316~344.
- Malkki, L. 1992. "National Geographic: The Rooting of Peoples and the Territorialization of National Identity Among Scholars and Refugees." *Cultural Anthropology*, Vol.7, No.1, pp.24~44.
- Massey, D. 1997. "A Global Sense of Place." in T.Barnes and D.Gregory(eds). *Reading Human Geography: The Poetics and Politics of Inquiry*. London: Arnold, pp.315~323.
- Massey, D. 2005. *For Space*. London: Sage.
- Meier, L. 2015. *Migrant Professionals in the City: Local Encounters, Identities and Inequalities*. London: Routledge.
- Mitchell, T. 2004. "The Middle East in the Past and The Future of Social Science." in D. L. Szanton(eds.). *The Politics of Knowledge: Area Studies and the Discipline*.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74~118.
- Norris, P. 2003. "Global Governance and Cosmopolitan Citizens." in D. Held and A. McGrew(eds). *The Global Transformations Reader*, 2nd ed. Cambridge: Polity

- Press, pp.287~298.
- Pred, A. 1984. "Place as Historically Contingent Process: Structuration and the Time-Geography of Becoming Plac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74, No.2, pp.279~297.
- Rivers, W. P. 1998. "Is Being There Enough? The Effects of Homestay Placements on Language Gain During Study Abroad." *Foreign Language Annals*, Vol.31, No.4, pp.492~500.
- Sauer, C. 1952. *Agricultural Origins and Dispersals*. New York: The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 Sheller, M. 2016. "Uneven Mobility Futures: A Foucauldian Approach." *Mobilities*, Vol.11, No.1, pp.15~31.
- Sheller, M. 2018. *Mobility Justice*. Brooklyn, New York: Verso Books.
- Sibley, D. 1981. *Outsiders in Urban Societies*. Oxford: Blackwell.
- Thrift, N. 1994. "Inhuman Geographies: Landscapes of Speed, Light and Power." in P. Cloke(eds.). *Writing the Rural: Five Cultural Geographies*. London: Paul Chapman, pp.191~250.
- Torkington, K. 2012. "Place and Lifestyle Migration: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Glocal' Place-Identity." *Mobilities*, Vol.7, No.1, pp.71~92.
- Urry, J. 2007. *Mobilities: New Perspectives of Transport and Society*. New York: Routledge.
- Urry, J. 2012. *Sociology Beyond Societies*. London: Routledge.
-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종합안내서비스. <https://www.isi.go.kr/EgovPageLink.do?link=isi/kr/serviceIntro/service04&menuId=A004>
- 서귀포시 홈페이지(주민등록통계). <https://www.seogwipo.go.kr/info/stats/resident.htm>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https://www.jdcenter.com>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je.go.kr>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